



고구려 초기 消奴部, 桂婁部の 형성과 卒本

Research on formation of Sonobu(消奴部) and Gyerubu(桂婁部) in the Jolbon(卒本), the early Koguryo Dynasty

**저자
(Authors)** 임기환
Lim Ki Hwan

**출처
(Source)** [사학연구](#) , (136), 2019.12, 5-45 (41 pages)
[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 (136), 2019.12, 5-45 (4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사학회](#)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6548>

APA Style 임기환 (2019). 고구려 초기 消奴部, 桂婁部の 형성과 卒本. 사학연구, (136), 5-4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6:1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구려 초기 消奴部, 桂婁部の 형성과 卒本

임기환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머리말

I. 『삼국지』 고구려전의 왕실교대 관련 기사 검토

II. 중국 환인 일대 고구려 초기 고고자료의 분포와
消奴部, 桂婁部

III. 소노부, 계루부의 형성과 부여계 세력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투고일: 2019. 11. 28. ● 심사일: 2019. 11. 29. ● 게재확정일: 2019. 12. 8.
- <https://doi.org/10.31218/TRKH.2019.12.136.5>

요약

본 연구는 고구려 초기 왕실 교대 시기 및 졸본에서 국내로의 천도 시기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왕실교대 시기를 탐색하기 위하여 초기 도성인 졸본지역에서 소노부(비류나부)와 계루부의 형성 및 존재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삼국지』 고구려전의 왕실교대 관련 기사를 통해 왕실 교대 시기 및 소노부의 위치와 졸본 지역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消奴加와 拔奇的 “遷住沸流水” 및 伊夷模의 “更作新國” 기사를 분석하여 消奴加的 정치적 기반이 비류수 즉 지금의 혼강 일대이며, 발기가 거느린 하호 3만여 구는 실제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이모의 “更作新國”이 왕실의 기반인 계루부를 가르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비류수로 비정되는 혼강과 그 지천 유역 일대의 고구려 초기 고분군의 분포와 성격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지금의 환인 일대가 소노부의 세력 기반임을 파악하였다. 특히 육도하 유역이 가장 이른 시기 선주세력의 기반이며, 부여계 이주민과 연결되는 망강루고분군 조영세력과 결합하면서 상고성자고분군과 하고성자 일대가 초기 정치적 중심지였고, 그 뒤 고력묘자 고분군 일대가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는 양 고분군이 하나의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음을 뜻하며 그것은 바로 소노부임을 추론하였다. 졸본에서는 계루부라는 또다른 나부가 형성될 수 있는 별도의 고고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고자료에서 추정된 내용을 문헌자료로 검토하기 위해 고구려본기에 등장하는 계루부를 구성하는 주요세력으로 추정되는 부여계 이주민 관련 기사를 검토하고, 초기 왕실을 구성하는 세력과 비류나부(소노부)의 정치적 결합 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졸본지역에서 왕실의

기반으로서 계루부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정치적 구심점으로서 졸본도성의 위상을 검토한 결과 유리왕대 離宮의 존재나 유리왕에서 모본왕까지 왕릉의 장지가 졸본 도성에서 벗어나 있는 양상을 통해, 졸본 도성의 정치적 구심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아직 왕실의 기반인 계루부가 형성되지 않았던 결과로 파악하였다. 즉 졸본계 왕계시기에 고구려 왕실은 소노부(비류나부)를 구성하는 세력의 하나였으며, 이러한 모습이 『삼국지』 고구려전에 기술된 “本消奴部爲王”이란 역사상으로 이해하였다.

주제어 : 계루부, 소노부, 비류나부, 졸본, 왕실교대, 상고성자고분군, 고력묘자고분군, 망강루고분군

머리말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에서 적잖은 논의가 진행된 주제가 卒本에서 國內로의 遷都 문제, 그리고 消奴部에서 桂婁部로의 왕실 교대 문제로서, 필자는 근래에 이 주제에 대한 문헌적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다.¹⁾ 사실 도읍지 이동과 왕실 교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에, 이를 구분하여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消奴部에서 桂婁部로의 왕실 교대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주몽에 의한 고구려 건국 초에 있었고, 그 뒤 卒本에서 國內로의 천도는 계루부 왕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왕실 교대와 국내 천도를 하나의 맥락에서 다루는 시각들도 근래에 등장하고 있다.²⁾ 필자 역시 왕실교대와 국내 천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첫 도읍지인 졸본 지역에서 소노부 및 계루부의 형성과 존재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소노부에서 계루부로의 왕실 교대 시기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년전에 발표한 필자의 논고를 잇는 후속편이다.³⁾

고구려 초기에 5那部 체제가 형성되었음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충분히 검토된 바이다. 그리고 那部를 구성하는 那와 那部の 성격은 지역단위 정치체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
- 1) 임기환, 2018a, 「고구려 전기 都城관련 기사의 재검토」 『역사문화연구』 65
임기환, 2018b, 「고구려 國內 천도시기 再論」 『사학연구』 132호
 - 2) 김중은, 2003, 「고구려 초기 천도시사로 살펴본 왕실교체」, 『속명한국사론』3
권순홍, 2015, 「고구려 초기 都城과 改都」, 『한국고대사연구』 78
기경량, 2017, 『高句麗 王都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본 논문은 前稿(임기환, 2018b, 앞의 논문)에서 지면상의 제약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고의 논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고를 참고한 뒤에 본 논문을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다만 별개의 논문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논지 전개에 편의상 필요한 부분은 전고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는 부분도 있다.

다만 5那部の 형성 과정에 있어서 계루부는 다른 那部[奴部]와는 성격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⁴⁾ 즉 초기 고구려의 구성 집단인 다른 나부들은 지역 기반의 성격을 드러내는 ‘那(~奴)’라는 명칭을 공유하고 있음과는 달리 ‘桂婁部’는 그 명칭에서 압록강 중류 유역의 토착 집단이 아니라 외래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⁵⁾ 필자도 이 견해에 동의하며, 이런 점에서 왕실을 구성하는 那部인 소노부⁶⁾와 계루부의 형성을 추적해 보고, 그것이 왕실교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 『삼국지』 고구려전의 왕실교대 관련 기사 검토

고구려 都城 및 왕실 교대와 관련하여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三國志』 권30 魏書 동이 고구려전(이하 『삼국지』 고구려전)이다. 『삼국지』 고구려전은 고구려 내부 사회상에 대해서 다른 史書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을 다수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구려 초기사 연구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와 대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 4) 『삼국지』 고구려전의 奴部명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那部명은 다음과 대응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연구』, 한나래, 61쪽). 洸奴部=沸流那部(沸流那), 絶奴部=椽那部(椽那, 提那部), 灌奴部=貫那部(貫那), 順奴部=桓那部(桓那), 단 고구려본기에는 계루부에 해당되는 部名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도 왕실세력 및 方位名部에 속하는 인물들이 계루부에 속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다.
 - 5)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54~55쪽.
 - 6) 『삼국지』 고구려전의 ‘소노부’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비류나부’는 동일한 部인데, 전거 자료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표기도 통일시키지 않고 해당 전거자료에 따라 표기하고자 한다. 다만 전거자료를 굳이 따지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본고의 또다른 초점인 계루부와 대응시키는 입장에서 같은 전거자료에서 나오는 ‘소노부’로 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노부(비류나부) 혹은 비류나부(소노부)로도 표기하였다. 部名 표기에 따른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런데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를 분해하여 관련 주제에 맞추어 사료로 활용하다 보면, 고구려전 전체가 보여주는 기사의 맥락이 다소 희석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고구려전에서 다루는 기사가 어느 시기의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왕실교대 시기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특히 왕실교대와 관련된 기사가 고구려 본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사료 A>

A-① 본래 五族이 있는데[本有五族], 消奴部,⁷⁾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이다. 본래[本] 消奴部가 王이었는데, 점차 미약해져서 지금은[今] 桂婁部가 왕을 한다. (중략)

A-② 王의 宗族으로 大加는 모두 古雛加를 칭한다. 消奴部가 본래[本] 國主였기에, 지금은[今] 비록 王이 아니지만 適統大人은 古雛加를 칭하고 역시 宗廟를 세우고, 靈星·社稷에 제사지낸다. 絶奴部는 대대로 王과 혼인하였으므로 古雛의 칭호를 더하였다. (중략)

A-③ 宮이 죽고, 아들 伯固가 왕이 되었다. (중략) 伯固가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長子는 拔奇이고 작은 아들이 伊夷模이다. 拔奇가 不肖하여 國人이 모두 伊夷模를 왕으로 세웠다. 伯固때부터, 여러 차례 遼東을 침범하였으며, 또 亡胡 五百餘家를 받아들였다. 建安(196~220) 중에 公孫康이 군대를 보내어 격퇴하고 그 國을 파하였고 음악을 불태웠다. 拔奇가 형임에도 왕이 되지 못함을 원망하여 消奴加와 더불어 각기 下戶 3만여구를 거느리고 (공손)康에게 나아가 항복하였으며 沸流水로 돌아와 머물렀다[遷住沸流水]. 降胡 역시 伊夷模에 叛하였다. 伊夷模가 ‘更作新國’하였으니,

7)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涓奴部’로 표기되어 있지만, ‘消奴部’의 오기로 보는데 통설이기 때문에(李丙燾, 1975, 「高句麗 國號考」,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359~360쪽), 본고에서도 이를 따른다. 따라서 『삼국지』 고구려전의 해당 기사를 인용할 때 ‘涓奴部’를 ‘消奴部’로 표기한다.

今日の 소재지이다. 拔奇가 드디어 遼東으로 돌아가고, 그 아들이 구려국에 머물렀는데, 지금[今] 古雛加 駁位居가 그이다. (중략)

위 고구려전 기사는 이 글의 주제인 國內로의 천도 시기 및 왕실교대 시기와 관련하여 몇가지 점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료 A-①② 기사가 고구려 왕실교대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왕실교대의 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本消奴部爲王, 今桂婁部代之”에 보이는 本, 今の 시제적 표현이 어느 시기를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료 A-③에서 발기와 더불어 消奴가가 下戶 3만여구를 거느리고 공손강에게 항복한 뒤 “還住沸流水”했다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소노부가 本國主였다는 점에서 소노부의 위치는 곧 구도읍의 위치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노가와 더불어 발기 역시 3만구를 거느리고 “還住沸流水”한 위치를 소노가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 왕실이 계루부인데, 발기는 伯固의 長子라는 점에서 발기가 거느린 3만여구가 계루부 세력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발기가 “還住沸流水”한 위치가 계루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넷째, 발기가 거느리고 있던 3만구를 계루부 세력이라고 보고, 또 이에 대응하여 伊夷模가 “새로 新國을 세운(更作新國)”한 세력 기반 역시

8) 『삼국지』 권30 고구려전. “本有五族, 有涓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중략) 王之宗族, 其大加皆稱古雛加. 涓[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絶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중략) 宮死, 子伯固立 (중략) 伯固死, 有二子, 長子拔奇, 小子伊夷模.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 自(伯)固時, 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建安(196~220)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今日所在是也. 拔奇遂往遼東, 有子留句麗國, 今古雛加駁位居是也.”

계루부 세력일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양자의 관계 역시 동시에 해명해야 한다.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前稿에서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시간을 보여주는 기사, 예컨대 “今桂婁部代之”의 ‘今’의 시점이나 “本消奴部爲王”의 ‘本’의 시점을 검토한 바 있다. 논지의 전개상 전고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今’의 시점이 가장 명료한 기사는 “名位宮. 伊夷模死, 立以爲王, 今句麗王宮(동천왕)是也.”란 기사 및 “伊夷模(산상왕) 更作新國, 今日所在是也.”라는 기사이다. 이를 통해서 ‘今’의 시점인 동천왕대를 기준으로하여 伊夷模(산상왕) 이후 시기가 ‘今’의 시간적 범위에 포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사만으로는 “本消奴部爲王”의 ‘本’의 시간적 범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本’이 신대왕 이전의 상황을 모두 가리킨다는 근거 또한 없다.

그래서 고구려전의 기술 내용들이 어떤 시기에 획득된 정보인가를 통해 ‘本’의 시점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한다. 고구려전의 ‘今’으로 기술된 기사는 대부분 공손씨 정권이나 관구검 침공시에 획득한 정보에 의한 것이다.¹⁰⁾ 일부 중국과 고구려의 대외관계 기사를 제외하고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보여주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本’의 시점으로 기술된 내용은 ‘今’의 시점에서 본 시간적 상대 개념으로, 『삼국지』 고구려전을 구성하는 다수의 정보를 얻은 시점인 ‘今’에서 파악한 과거의 사실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本’으로 서술한 기사는 과거 ‘本’의 시점에서 획득한 정

9) 임기환, 2018b, 앞의 논문, 218~222쪽 참조.

10) 『삼국지』는 西晉의 武帝 太康 연간(280~289)에 陳壽(233~297)가 편찬하였는데, 그중 동이전 서술이 公孫氏 정권이나 유주자사 관구검의 고구려 정벌시에 획득한 정보에 기초하였음은 동이전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보도 있겠지만, ‘今’의 시점에서 얻은 과거의 사실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년 기사가 아닌 고구려 사회의 내부 정보는 대부분 ‘今’의 시점에서 획득한 정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本’의 시점이 ‘今’의 시점에서 그리 먼 과거가 아닌 정보들이 상당수라고 판단한다.¹¹⁾ 이렇게 보면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本’으로 기술된 기사의 내용들이 『삼국지』 고구려전을 구성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고구려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가치를 갖는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위 사료 ②에서 消奴部 관련 기사에서도 소노부가 本國主라는 정보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소노부의 適統大人이 古雛加를 칭하고, 또 소노부가 宗廟를 세우고, 靈星·社稷에 제사지내는 독특한 ‘今’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本’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고 이해한다.

위 기사 A-①②에서 기술하고 있는 ‘本’國主였던 소노부에서 ‘今’왕실인 계루부로 교체되었던 시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음은 전고에서 살펴보았다.¹²⁾ 그런데 필자는 ‘今’의 시점, 즉 동천왕 때에도 소노부가 ‘本國主’라는 이유로 여전히 宗廟를 갖고 있고, 靈星·社稷에 제사를 지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立宗廟, 祠靈星社稷”이 왕실 고유의 권한이며 통치자가 갖는 상징성이 높은 의례 행위라고 볼 때, 아무리 前왕족이라고 하더라도 왕위를 잃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과연 “立宗廟, 祠靈星社稷”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천왕 때까지도 소노

11) 이러한 점은 같은 『삼국지』 부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외 관계 기사가 거의 없는 부여전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今’의 시점에서 획득한 정보가 거의 대부분으로 추정된다. 부여전의 ‘今’의 시점 역시 고구려전과 마찬가지로 공손씨 정권이나, 관구검의 동방 정벌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공손씨 정권 이전의 상황이 ‘本’의 시점으로 기술되고 있다. 다음 문장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夫餘本屬玄菟,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尉仇台更屬遼東(중략) 漢時, 夫餘王葬用玉匣, 常豫以付玄菟郡, 王死則迎取以葬. 公孫淵伏誅, 玄菟庫猶有玉匣一具. 今夫餘庫有玉璧·珪·瓚數代之物, 傳世以爲寶” (『삼국지』 부여전)

12) 임기환, 2018b, 앞의 논문, 195~198쪽.

부가 “立宗廟, 祠靈星社稷”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노부에서 계루부로의 왕실교대가 그리 멀지 않은 때였을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동천왕의 혈연적 계보를 추적해 올라 가면 소노부에서 계루부로의 왕실 교대가 이루어진 시점이 드러날 수 있을까? 『삼국지』 고구려전 내에 등장하는 고구려왕은 雛[鄒牟], 고구려왕, 그리고 宮-伯固-伊夷模-位宮의 계보이다. 그중 宮과 位宮이 증조-증손 관계로 기록된 것을 보면 『삼국지』 편찬자는 적어도 宮 이후의 王系를 하나의 혈연계보로서 계루부 왕계로 파악한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 『삼국지』 고구려전 왕계에는 『후한서』에 보이는 遂成[차대왕]이 누락되어 있다. 즉 증조-증손이라는 혈연적 관계의 기술은 두 왕의 혈연계보에 대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宮-伯固-伊夷模-位宮의 왕계를 혈연계보로 이해한 기술일 뿐이다. 따라서 『삼국지』 고구려전 기록상에서도 태조왕[宮] 이후를 계루부 왕계 특히 하나의 혈연 계보로만 파악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 사료 A-③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를 검토해보자. 이 기사는 伯固의 아들 拔奇와 伊夷模가 왕위계승 다툼을 벌이면서 발기는 消奴加와 더불어 요동의 공손강에게 항복하였다가 비류수로 되돌아갔고, 이에 이이모는 ‘更作新國’하였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때 ‘新國’이 ‘今日’ 소재한 곳이라고 그 위치를 밝히고 있지만, 舊國의 위치나 舊도읍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위 고구려전 기사를 보면 이이모의 ‘更作新國’의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2가지 내용이 앞서 기술되고 있다.¹³⁾ 먼저 建安(196~220) 연간에 公孫康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國’을 파하고 읍락을 불태웠다는 것이다.

13) 이하 ‘更作新國’의 배경에 대한 기술은 임기환, 2018b, 앞의 논문, 216~217쪽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였다.

이때의 國을 도움으로 해석한다면 파괴된 구도읍 대신 새로운 도읍을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그러나 ‘破其國’을 곧 도움의 파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更作新國’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拔奇와 消奴加가 각기 下戶 3만여 구를 거느리고 공손강에게 항복하고 돌아와 沸流水에 머물렀다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문장이 바로 ‘更作新國’ 관련 기사이다. 위 문장상으로는 이이모의 ‘更作新國’의 요인으로 공손강의 ‘破其國’보다는 발기와 소노가의 ‘遷住沸流水’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읽혀진다. 물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역시 직접적인 계기는 발기와 소노가의 “遷住沸流水”라고 보는게 문장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그런데 消奴加와 발기가 하호 3만여 구를 거느리고 공손강에게 항복하고 다시 沸流水로 돌아와 머물렀다는 내용은 실제로 주민의 이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소노가와 발기가 항복함으로써 비류수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소노가와 발기가 각각 거느린 3만여 구 주민이 공손강의 영역으로 귀속되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발기와 소노가가 머물렀던 沸流水 일대가 ‘更作新國’에 대응하는 舊都를 포함한 舊國의 소재지임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국과 구도읍지는 비류수 일대이고, 이이모가 세운 ‘新國’은 丸都를 수도로 하는 고구려로서 바로 고구려전에서 전하는 관구검이 정벌한 고구려이다.

다음 소노가와 발기가 각각 거느렸다고 하는 주민 3만여 구의 거주지를 각각 비류수의 어디에 비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먼저 消奴加가 3만

14) 여호규는 其國의 ‘國’을 도움으로 해석하여 공손강이 舊도읍을 파괴하여 신도읍으로 옮긴 것이 ‘更作新國’이라고 이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선구에 있던 구도읍에서 환도산성인 신도읍으로 이거한 것으로 보고있다. (여호규, 2005, 「고구려 國內遷都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49~51쪽, 63~64쪽) ‘更作新國’의 ‘國’을 도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거는 임기환, 2018b, 앞의 논문, 215~216쪽 참조.

여 구를 거느렸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고구려 주민수가 총 3만여 호라고 하였는데, 당시 5개의 部가 있다고 하였으니, 한 개 部의 평균 인구 수는 3만 인 정도이다. 소노가가 거느린 3만여 구는 이 평균과 일치한다. 물론 소노부가 前國主였기 때문에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고 보면 평균인 3만여 구를 넘을 수도 있겠지만, 部 인구수의 많고 적음이 세력의 강성 여부를 뜻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어쨌든 部의 평균 인구수에 준하는 소노가가 거느린 3만여 구가 곧 소노부 전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발기가 거느린 하호 3만 여구는 어떤 세력일까? 발기가 고구려왕인 伯固의 長子라는 점에서 당시 왕실을 배출하고 있는 계루부라고 볼 수도 있다. 소노부가 3만여 호였으니 발기가 거느린 3만여 구 역시 계루부세력 전체에 해당되는 인구 수이다. 만약 발기가 계루부 전체를 거느렸다면, 伊夷模가 ‘更作新國’할 수 있는 세력 기반은 무엇이였을까? 소노부 및 발기가 거느린 계루부를 제외한 나머지 3부였을까?

그런데 위 사료에서 “拔奇가 不肖하여 國人이 모두 伊夷模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내용의 國人은 곧 계루부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위 문장에서는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술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산상왕 즉위년조 기사를 보면, 발기는 수도 국내성에서 동생 연우(산상왕)과 다투다가 國人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패하여 공손씨 정권으로 투항하였음을 전하고 있다.¹⁵⁾ 여기의 國人들은 곧 도성의 주민들 즉 계루부세력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¹⁶⁾ 『삼국지』 고구려전의 國人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발기가 거느렸다고 하는 3만여 구의 실체에 의문이 든다.

15)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4 산상왕 즉위년조.

16) 당시는 아직 도성에서 那部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성 내 세력은 계루부출신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발기도 3만여 구를 거느리고, ‘更作新國’한 이이모 역시 이에 못지 않은 세력기반을 갖추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개 部の 평균 인구수가 3만 인임을 고려하면, 아무리 계루부가 왕실세력이라고 해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세력기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왕족인 소노부 역시 3만여 구였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발기가 거느린 3만여 구는 계루부 세력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이를 발기가 실제로 장악했다기 보다는, 공손씨 정권에게 고구려 국왕의 長子로서 계루부 3만여 구가 자신 휘하의 세력임을 강조하는 言說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이모와의 왕위계승 다툼에서 패배한 발기가 소노가와 대등한 수준의 별도의 세력기반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만약 발기가 계루부의 일정한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함께 “還住沸流水”한 권역에서 소노부와 계루부가 어떠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문헌 자료로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비류수 일대의 고고자료를 통해 2장에서 탐색하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사료 ③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자. “발기가 요동으로 갔다”는 문장은 발기와 소노가의 이탈로 인해 비류수 일대가 공손강의 통제권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고구려의 영역 내로 회복되고, 발기가 요동의 공손씨 정권으로 도망한 사정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이모와 왕위를 다투었던 拔奇가 공손강에게 항복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소노가가 함께 이탈한 이유는 무엇일까? 위 문장에서는 그 이유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삼국지』 고구려전 기술상에서는 앞서 언급되고 있는 “본래 消奴部가 王이었는데, 지금은 桂婁部가 왕위를 대신 차지하였다”는 내용(사료 A-①②)을 이탈의 이유로 고구려전 찬자는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비류수 일대가 구도읍이면서 소노가

의 근거지라는 점에서, ‘遷住沸流水’ 및 ‘更作新國’의 주요 배경으로 소노부에서 계루부로의 왕실교대를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즉 산상왕이 ‘更作新國’하였다는 기술은 공손씨 정권에 내투하였던 소노부 및 발기의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 이전에 계루부로의 왕실 교체가 있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前왕족인 소노부 입장이 투사되어 마치 산상왕에 의해 ‘更作新國’한 것으로 기술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소노가의 이탈은 본래 舊國의 영도 세력이었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배경이 되었다는 추정으로 이어진다. 어쩌면 소노부가 前왕족이며, 前國主였다는 정보도 이때 消奴加가 공손씨에게 투항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消奴加의 행동은 소노부에서 계루부로의 왕실교대가 산상왕 때로부터 그리 먼 시점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II. 중국 환인 일대 고구려 초기 고고자료의 분포와 消奴部, 桂婁部

1장에서 沸流水 일대에 소노부 3만여 구가 자리잡고 있었음은 문헌상으로 분명하지만, 발기가 거느린 3만여 구의 세력도 동시에 비류수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제 고고자료를 통해 그 여부를 탐색해 보자. 문헌상의 비류수가 오늘날의 渾江을 가리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여러 고고자료를 통해 고구려 초기 도읍지인 卒本이 위치한 곳으로 비정되는 요령성 환인 지역은 바로 혼강 중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비류수 즉 혼강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초기 주요 유적에 대해 살펴 보자.

지금까지 조사된 고구려 초기 유적으로는 五女山城을 비롯하여 下古城子土城, 喇哈城 등 일부 성곽 유적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고분군 유적이다. 이들 고분군은 혼강 변에도 분포하고 있지만, 주로 혼강으로 흘러들어가는 富爾江, 六道河, 大雅河 등 지류들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요 지류들을 중심으로 분포 권역을 육도하 유역, 대아하 유역, 고력묘자 권역 등 3 권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좀더 확장하여 부이강 유역까지 포함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중 고분군의 밀집도나 규모를 고려하면 육도하유역 고분군 및 高力墓子 고분군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력묘자 고분군은 오녀산성과 마주보는 위치의 혼강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일대의 지리적 형세를 보면 고력묘자 동쪽으로는 신개하와의 사이에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고력묘자촌의 서남쪽으로는 지금 환인 시가지가 자리잡고 있는 넓은 평지로 이어진다. 여기 환인 시가지에서 혼강을 건너면 육도하 하구와 망강루 고분군 일대이다. 이곳 환인 시가지와 육도하 하구를 포함하는 혼강 좌우안이 환인 일대에서 가장 너른 평지가 펼쳐지는 곳으로, 아마도 고구려 초기 도읍지 卒本이 위치하였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이다.

그중 육도하 하구가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육도하를 따라가면 환인에서 蘇子河나 太子河 상류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이다. 또 육도하 하구에서 哈達河를 건너 오녀산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혼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망강루를 지나 대아하 유역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육도하 유역은 환인 일대에서 가장 많은 적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육도하 하구에는 상고성자 고분군이 있으며, 또 상류로 올라가면서 육도하로 흘러 들어오는 지류천 주변에도 다수의 적석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는데, 대전자, 풍가보자, 채야보, 천리 등이다. 더욱 육도하 유역은 고구려 적석묘의 선행 묘제인 대석개묘, 대석개적석묘 및 석관묘 등을 비롯해 고구려

건국 이전부터 고구려 건국기에 걸쳐 조영된 초기 고분이 밀집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¹⁷⁾

육도하 하구에 자리한 상고성자 고분군은 고령묘자 고분군에 비견될 정도의 규모이다. 1960년대에는 200여기가 있었으나 농지개간으로 급격히 파괴되어 1988년 조사 당시 27기로 감소하였는데, 무기단 및 기단의 수혈식 적석묘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른 시기의 고구려 초기 고분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혼강 변에 위치한 하고성자 성터는 둘레가 약 0.8km되는 장방형의 토성으로, 현재 마을이 들어서 있어 그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방형 토성이라는 점에서 현도군에 속해있던 縣城으로 축조되어 이후에 고구려가 활용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¹⁸⁾ 성내 출토품 중 중국 근현과 연관되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축성의 주체를 중국식 축성법을 배운 초기 고구려인으로 보기도 한다.¹⁹⁾ 하고성자 성을 축조한 주체와 가까이에 위치한 상고성자 고분군의 축조 세력이 깊이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육도하 유역 하구에서 대아하로 가는 혼강 변에는 망강루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낮은 산마루 정상부에서 비탈 아래로 무기단적석묘 6기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며, 무덤구조는 전형적 무기단적석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적석묘가 강안 평지나 산기슭에 조영된 것에 비해 낮은 산마루 정상부라는 점이 독특하다. 고분은 6기에 불과하지만, 고분군이 독립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무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출토된 위세품 등을 고려하면 이 일대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고분군으로 파악할

17) 환인 일대 각 고분군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은 김종은,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집단 연구」(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여 본고에 맞는 내용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아래에서는 일일이 김종은의 전거를 밝히지 않음을 양해바란다.

18) 魏存成, 1985, 「高句麗初·中期的都城」, 『北方文物』1985-2, 29쪽.

19) 李新全·梁志龍·王俊輝, 2004, 「關於高句麗兩座土城的一點思考」, 『東北史地』2004-3, 34쪽.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귀걸이는 부여계 무덤인 유수 노하심 고분군과 서풍 서차구의 출토품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건국설화에 나타나듯이 부여계 주민집단의 이동을 상정할 수 있는 고고자료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고분군 연대도 대체로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고구려 국가형성기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⁰⁾ 망강루 고분군 자체가 소규모이며 독립된 고분군이기 때문에 이를 조영한 세력을 독자적인 정치집단으로 상정하기는 어렵고, 가장 가까운 상고성자 고분군의 조영 세력과 관련하여 파악해야 한다.²¹⁾

한편 고력묘자 고분군은 환인시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거리에 있다. 혼강 댐이 건설되면서 이 일대의 강안 저지대와 대부분의 고분군이 수몰된 상태이다. 고력묘자 동쪽 2.5km 떨어진 연강촌과 고력묘자 서쪽 혼강 건너의 장강촌에 있는 고분군도 모두 수몰되었다. 댐 건설 이전 1950년대 조사 자료에 의하면 고력묘자 고분군은 240여기가 확인된 환인 최대의 고분군으로, 방단적석묘와 계단적석묘 등의 수혈식적석묘 및 횡혈식의 계단적석묘, 봉석묘, 봉토묘 등이 확인되어 장기간 지속된 고분군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장 이른 시기의 무기단적석묘가 보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앞에서 살펴본 상고성자고분군 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부터 본격 조영되기 시작하여 고구려 중후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 李新全, 2005, 「五女山山城及其周圍的高句麗早期遺跡」,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여호규, 2011,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역사문화연구』39

21) 이준성은 기원전 1세기경 우월한 지배력을 갖춘 망강루 집단이 부여에서 이주하여 상고성자 집단과 결합하면서 육도하 집단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이준성, 2019,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다음 망강루에서 남쪽으로 혼강을 따라가면 대아하가 동류하며 혼강과 만나는데, 대아하 유역에는 100여기에서 수백여기에 이르는 만만천, 연합, 대청구 등의 대형 고분군이 연속 분포하고 있다. 이들 고분군에는 무기단적석묘를 비롯하여 방단적석묘, 방단계제적석묘 등의 수혈식적석묘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고구려 초기부터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이강 유역의 중하류에도 고구려 초기 적석묘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신빈의 산성구문과 노흑구, 환인의 대황구와 왕의구 일대로서 고구려 건국 전후부터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부이강 하구 일대 및 이곳에 위치한 나합성은 건국지인 졸본으로 비정되기도 했다. 이곳에서 부이강을 따라 올라가면, 신빈 영릉진고성 및 통화 적백송고성으로 이어지고, 혼강 지류인 신개하를 경유하여 국내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로상의 요지이다. 나합성은 길이와 너비 200m 전후인 方形 평지성인데, 성 내부에서 고구려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고, 성벽이 켜기형돌로 축조되었다는 보고를 인정해도 축조시기는 고구려 중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합성을 고구려 초기 유적으로 보기는 어렵다.²²⁾

이상 환인 일대에서 혼강과 그 지류를 중심으로 소권역으로 나누어 고구려 초기 유적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 고분군의 분포에서 고분군간 위계화 현상을 읽어낼 수 있다면 이를 문헌자료에 보이는 정치세력의 동향과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은의 연구는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²³⁾ 김종은은 다른 고분군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지닌 중심고분군을 설정하고 고분군의 위계화 현상을 파악하였는

22) 필자가 답사하여 성곽 유적 일부를 관찰한 바로는 고구려시기 성곽으로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주변의 지리적 형세도 도성이 위치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3) 김종은, 2017, 「압록강 유역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출현과 분포 양상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61집 61~62쪽, 55~56쪽

데, 환인지역에서 위계화 과정을 보이는 곳으로 육도하 일대와 고력묘자 일대에 주목하고 있다.

육도하 고분군은 기단적석묘 단계까지 출토 유물이나 고분군의 규모, 고분의 크기에 있어서 다른 소권역을 압도하고 있는데, 기원전 3세기 경에는 대전자 일대가 중심고분군이었다가 기원전 1세기 경에는 상고성자와 조합을 이룬 망강루 고분군으로 이동되고, 기단적석묘가 조영되는 기원 1세기 경에는 성고성자 고분군으로 옮겨간다고 파악하고 있다. 고력묘자고분군은 기단적석묘 단계에서는 상고성자 고분군 보다 위세가 크지 않았지만, 계단적석묘 단계에서 다른 소권역 보다 우월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고구려 중후기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아하 유역이나 부이강 유역에서는 기단적석묘 단계에서 중심고분군의 위세가 미약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⁴⁾

이러한 고분군의 위계적 변화 양상을 인정한다면, 이를 1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류수 일대에 세력기반을 두고 있는 소노부(비류나부)와 계루부의 동향과 어떻게 연관시켜볼 수 있을까? 고분자료가 보여주는 양상은 혼강 즉 비류수 유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정치적 중심지로 떠오른 지역이 육도하 유역이고, 기원전 1세기 경에 망강루와 상고성자가 하나의 조합으로, 기원 1세기 경에는 상고성자 고분군이 환인 일대에서 중심고분군이 된다. 이를 문헌자료와 대응시키면 육도하 유역 고분군의 조영 세력이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先住세력으로서 沸流國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²⁵⁾ 그렇다면 5나부 중 비류나부(소노부)로 비정하는 것이 가장 타

24) 김중은, 위의 논문, 67~68쪽

25) 비류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부이강 유역(朴燦奎, 2008, 「비류국 연구」 『초기 고구려 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중국사회과학원), 나합성(조법종, 2007, 「고구려 초기 도읍과 비류국성 연구」 『白山學報』77)로 보기도 하고, 고분군 등 고고자료에 의해 고력묘자고분군 일대(강현숙, 2000, 「石槨積石塚을 통해 본 高句麗 五部」 『역사문화연구』12)로 비정하기도 한다. 이는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건국설화에서 비류국이

당해 보인다.²⁶⁾ 그리고 망강루 고분군은 위계는 높지만 고분군의 규모가 6기에 불과하고 또 출토품에서 부여계 이주민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면, 고구려본기에 등장하는 朱蒙세력이나, 유리왕세력 등과 대응시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문제는 혼강 대안에 있는 고령묘자고분군과 상고성자고분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강현숙은 환인 상고성자고분군과 하고성자고성 일대를 계루부로, 환인 고령묘자 고분군 일대를 비류나부(소노부)로 비정한 바 있다.²⁷⁾ 그런데 앞서 김종은의 연구와 같이 고령묘자 고분군의 조영 시기가 상고성자 고분군 보다 다소 늦다면 고령묘자 고분군의 조영 집단을 선주세력인 비류나부로 보기는 어렵겠다.

상고성자 고분군의 조영세력을 비류나부(소노부)로 본다면, 고령묘자 고분군의 조영세력을 이와 구분되는 계루부에 대응시켜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상고성자 고분군이 먼저 조영되기 시작하고, 고령묘자 고분군이 다소 늦게 조영되고 기단식적석묘 단계에서는 상고성자고분군보다 열세이지만, 3세기 이후 계단식적석묘 단계에서 중심 고분군으로 등장하면서 늦은 시기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를 보면 비류수 유역에서 소노부(비류나부)의 세력이 3세기 초, 중반까지도 주민 3만여 구라는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거느리고, 또 종묘를 세우고 영성, 사직에 제사지내는 등 여전히 강력한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3세기 단계 소노부의 이런 존재 양상을

주몽의 건국지 보다 상류에 위치하고 있음을 고려한 견해이다. 그런데 이런 견해들은 앞서 살펴본 고분군 등 고고자료의 분포 현상과는 잘맞지 않는다.

26) 이준성도 김종은 2017, 앞의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육도하 일대 세력을 비류국, 비류나부로 비정하였다. (이준성, 2019, 앞의 박사학위논문, 124쪽)

27) 강현숙은 椽那部(절노부)는 압록강 이남 지역, 貫那部는 혼강시 일대, 桓那部(순노부)는 장백현 일대로 비정하였다.(姜賢淑, 2000, 「石槨積石塚를 통해 본 高句麗 五部」, 『의대사학』 12, 15~23쪽)

상고성자 고분군의 양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고력묘자 고분군의 조영 집단을 계루부로 가정할 경우, 아무리 늦어도 2세기말 3세기 초에는 國內지역으로 천도하였는데, 國內 천도 주체 세력을 계루부라고 한다면 3세기 이후 고력묘자 고분군이 중심고분군이 되고 이후에도 고분 축조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과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양 고분군의 조영세력을 서로 다른 那部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 고분군이 다소의 시차가 있더라도 초기에 등장하여 서로 병행하며 존속하고 있으면서 점차 상고성자 고분군에서 고력묘자 고분군으로 중심이 이동해가는 모습은 소노부 내에서의 변화 양상일 것이다. 환인 일대 고분군 전체를 소노부의 세력 기반이며 영역 범위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노부(비류나부)는 육도하 유역과 상고상자고분군, 하고성자, 오녀산성, 대야하 유역의 고분군, 고력묘자고분군 등을 포괄하는 범위로 추정된다.²⁸⁾ 바로 앞장에서 살펴본 이이모가 ‘更作新國’하기 이전의 舊國이며 구도읍지가 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환인 일대를 소노부의 세력권으로 본다면, 환인에 위치한 초기 도읍지인 卒本の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졸본 도성을 소노부가 중심이 된 都城으로 보아야 할까? 특히 초기 도성인 卒本の 위치를 고력묘자村과 고력묘자고분군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유력하지만,²⁹⁾ 졸본 도성의 존재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³⁰⁾ 그리고 환인 일대를 소노부의 세

-
- 28) 부이강 유역은 소노부의 세력 범주에서 유보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오녀산성과 부이강 사이에는 산악지형이 가로막혀 있어 육로로 교통하기는 어렵고 혼강 수로를 이용해야 한다. 오히려 부이강 유역은 교통로상으로는 신개하 지역과 연관하여 파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김종은, 2017, 앞의 논문)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계루부의 형성을 살펴보면서 재론하도록 하겠다.
 - 29) 기경량, 2017, 「고구려 초기 왕도 졸본의 위치와 성격」 『인문학연구』 제34호.; 권순홍, 2019, 「고구려 도성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등 참조.
 - 30) 졸본 지역의 대표적인 도성 유적의 하나가 오녀산성이다. 일반적으로 오녀산성은 평지 거점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력묘자고분군 일대와 연관하여 산성과 평

력기반으로 본다면, 소노부의 뒤를 이어 고구려 왕실을 차지한 계루부의 세력기반은 어느 곳일까?

그리고 환인 일대를 소노부의 세력권으로 본다면, 문헌 자료에 보듯이 부여계 남하세력인 이른바 주몽세력이 졸본에 도읍하였다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망강루 고분군에서 부여계 이주민의 자취를 엿볼 수 있어서 고고자료 상으로도 비류나부 등 선주세력과 부여계 이주민이 결합해가는 양상을 망강루고분군과 상고성자고분군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부여계 이주민인 주몽왕 세력이나 유리왕 세력이 소노부(비류나부)와 별도의 部로서 계루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노부를 구성하는 일부 세력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³¹⁾ 그러면 계루부는 부여계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졸본과는 지역적 기반이 다른 즉 두번째 도읍지인 國內지역에서 등장하는 세력으로 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³²⁾ 이점에 대해 다시 문헌적인 검토를 시도해보자.

지성의 조합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김종은은 오녀산성에서 서한대 화폐가 출토되어 기원전 2세기부터 거주민 활동이 확인되므로 고령묘자와의 시간 간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오녀산성 정문은 哈達河를 따라 포자연을 거쳐 육도하 지역과 연결되기 수월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김종은, 2014, 앞의 박사학위논문) 이러한 김종은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싶다. 즉 졸본 도성의 위치를 고정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초기의 거점은 상고성자고분군 및 하고성자토성과 연관시켜 파악할 수 있고, 그뒤 고령묘자 혹은 환인시 일대가 주요 거점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31) 이준성은 망강루고분군을 부여에서 남하하여 이 지역 토착세력이었던 비류국과 결합한 유리 집단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다.(이준성, 2019, 앞의 박사학위논문)
- 32) 조영광은 비류부는 환인 및 신빈 일대, 계루부는 집안, 연나부는 임강일대와 그와 연결되는 집안 분지의 동부 외곽, 관나부는 집안 지역의 서부 외곽시대, 환나부는 압록강 상류의 장백지역 또는 압록강 이남 지역으로 파악하였다.(조영광, 2010, 「고구려 5那部の 성립과정과 영역 검토」 『大邱史學』 98, 67~68쪽)

Ⅲ. 소노부, 계루부의 형성과 부여계 세력

前稿에서 필자는 유리왕의 시조적 성격 및 유리왕대 國內 천도기사, 그리고 유리왕본기 내에서 서로 다른 계통성을 갖는 기사들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을 시도한 바 있다.³³⁾ 두 명의 시조적 성격을 갖는 주몽왕과 유리왕을 분리하여 주몽왕계와 유리왕계라는 2개의 왕실 계보를 구성하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王系와 대응시켜 주몽왕계는 주몽-□-대무신왕-민중왕-모본왕으로, 유리왕계는 유리왕-再思-태조왕-차대왕-신대왕 등으로 추정하였다. 주몽왕계가 먼저 왕실을 구성한 세력이고, 유리왕계가 나중에 왕실을 구성한 세력이었다. 그런데 양 왕계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後왕실의 시조왕인 유리왕이 先왕실인 주몽왕의 아들로 편입되어 현재 고구려본기에 전해지는 왕계의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본래 주몽왕의 뒤를 잇는 왕과 그의 사적이 전해지고 있었는데,³⁴⁾ 어느 시기엔가 여기에 後왕실인 유리왕의 사적이 함께 결합되어 현재 전하는 유리왕본기의 내용으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³⁵⁾

그런데 전자 즉 주몽왕계는 건국지였던 졸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王系라면, 후자 유리왕계는 아무래도 국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王系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리왕 22년의 國內 천도 기사는 실제의 역사가 아니라 국내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왕계가 자신의 정통성을 표

33) 임기환, 2018b, 앞의 논문, 203~204쪽.

34) 『위서』 고구려전에 전하는 고구려 초기 왕계에서 유리왕으로 비정되는 闔達과 대무신왕으로 비정할 수 있는 莫來 사이에 있는 如栗이라는 존재가 본래 주몽왕계에서 주몽의 후계왕이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임기환, 2018b, 앞의 논문, 203쪽).

35) 필자는 유리왕본기에서 國內천도 및 관련 기사, 質山 등 수렵지 등 지명의 계통성 등을 근거로 유리왕본기의 기사에서 계통성이 다른 기사가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임기환, 2018b, 앞의 논문, 201~202쪽)

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조왕 유리왕 시기에 國內 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정적으로 주몽왕, 대무신왕에서 모본왕까지의 왕계를 卒本계 왕계, 유리왕에서 再思를 거쳐 태조왕으로 이어지는 왕계를 國內계 왕계로 구분하여 부르려고 한다. 유리왕 22년조의 國內 천도 기사는 國內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왕계가 卒本을 기반으로하는 기존의 왕계에 자신의 왕계를 결합하면서, 건국 시조인 주몽왕의 아들로 자신 왕계의 시조에 해당하는 유리왕을 편입하고, 이 유리왕 때에 卒本에서 國內로 천도한 것으로 재구성한 결과로 추정하고자 한다.

필자가 여기서 『삼국지』 고구려전에 前왕실, 現왕실로 등장하는 消奴部(비류나부) 및 桂婁部와 연계시키지 않고 卒本계 왕계, 國內계 왕계라는 도읍지명으로 왕계 이름을 붙였던 까닭은 아직 卒本 지역에 있어서 소노부와 계루부의 존재 방식을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⁶⁾

앞장에서는 고고자료를 통하여 환인 즉 卒本지역이 소노부의 세력 기반에 해당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졸본지역에는 계루부 혹은 계루부와 연결될 수 있는 세력 기반은 과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해 고구려본기 등 문헌 자료를 검토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본기에서는 왕실이 주몽왕이든, 유리왕이든 모두 扶餘에서 남하하는 세력으로 기술되어 있다. 물론 건국설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여의 東明설화를 차용하여 만들었다는 견해에 따르면,³⁷⁾ 부여에서 이주한 세력이 왕실을 구성하는 것은 단지 설화상의

36) 졸본왕계와 국내왕계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전고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는데, 우선 본고에서는 졸본지역에서 소노부의 형성을 검토하고, 국내지역에서 계루부의 형성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후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37) 노태돈, 1999,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 『韓國古代史論叢』5;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所收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건국설화가 건국 초기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삼국지』 고구려전에서도 “동이의 옛말에 부여의 별종이다(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라고 기술하는 바와 같이 3세기에 이미 고구려 스스로 부여의 별종이라는 인식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여기서 ‘夫餘別種’의 뜻은 ‘別種’란 용례를 고려하면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갈라져 나온 국가라는 의미로 이해된다.³⁸⁾ 그리고 ‘東夷舊語’가 곧 건국전승이라고 짐작되며,³⁹⁾ 그렇다면 고구려 왕실이 부여로부터 남하한 세력이라는 건국전승의 내용이 이미 3세기 중엽 이전에 고구려사회에서 널리 수용되어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리고 앞장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고고자료상으로도 망강루고분군은 부여계 이주민과 깊은 관련성이 있을 뿐더러, 망강루고분군이 비록 우월한 위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배후 고분군으로 상고성자 고분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자의 결합 관계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시기가 지난 뒤에는 상고성자고분군이 가장 높은 위계를 갖는 중심 고분군이 되었다는 점은 부여계 이주민과 비류수 선주세력 사이에 결합이 더욱 진전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서 문제 제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고구려의 구성 집단인 나부들이 지역 기반의 성격을 드러내는 ‘那(~奴)’라는 명칭을 공유하고 있음과는 달리 ‘桂婁部’는 그 명칭에서 외래 집단 즉 부여계 이주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고구려본기에 나타나는 부여세력의 남하를 보여주는 기사들을 정리하면서, 졸본 지역에서 소노부와는 다른 계류부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자.

38) ‘別種’의 다른 용례로는 『三國志』 권30, 고구려전의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獮”이란 문장인데, 이 역시 고구려의 한 갈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39) 강경구, 2004, 「고구려 東盟祭 序說」, 『백산학보』68, 39쪽.

<사료 B>

B-① 卒本川에 이르렀다.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산하가 험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 마침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었으므로 다만 沸流水 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高句麗라 하고 그로 말미암아 高로써 성을 삼았다.⁴⁰⁾

B-② 동명성왕 19년(서기전 19) 여름 4월에 왕자 類利가 부여로부터 그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오니, 왕이 기뻐하며 태자로 삼았다.⁴¹⁾

B-③ 대무신왕 5년(22), 여름 4월에 부여왕 帶素의 아우가 曷思水 가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왕을 칭하였다. 이 사람은 부여왕 금와의 막내 아들인데 역사에는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처음 대소가 죽임을 당하자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알고, 따르는 자 백여 명과 더불어 압록곡에 이르렀다. 海頭國王이 사냥 나온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 그 백성들을 빼앗아 이곳에 와서 도읍하였는데, 이 사람이 曷思國王이다.⁴²⁾

B-④ 대무신왕 5년(22), 가을 7월에 부여왕 종제가 나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의지할 데 없는데 왕의 동생이 도망쳐 갈사에서 도읍하였다. 나도 역시 불초하여 다시 일으킬 수가 없다.” 라고 하며, 만여 명과 함께 내투하였다. (대무신)왕은 그를 왕으로 봉하여 掾那部에 안치하고, 그의 등에 줄무늬가 있었으므로 絡씨 성을 주었다.⁴³⁾

B-⑤ 대무신왕 15년(32), 겨울 11월에 왕자 好童이 자살하였다. 호동은 왕의 次妃인 曷思王 손녀의 소생이다. 얼굴 모습이 아름다워 왕이 매우 사랑하여 호동이라고 이름지었다.⁴⁴⁾

B-⑥ 태조대왕 즉위년 : 太祖大王 이름은 浞이다. 어렸을 때 이름은 於濑이며, 유리왕의 아들 古鄒加 再思의 아들이다. 母太后는 부여 사람이다. (중략) 왕은 나면서부터 눈을 떠서 볼 수 있었고 어려서부터 뛰어났다. 나

40)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즉위년조.
 41)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19년조.
 42)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대무신왕 5년조.
 43)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5년조.
 44)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15년조.

이가 7살이었으므로 태후가 垂簾聽政하였다.⁴⁵⁾

B-⑦ 태조대왕 16년(68) 가을 8월에 갈사국왕의 손자 都頭가 나라를 들어 항복하여 왔다.⁴⁶⁾

B-⑧ 태조대왕 69년(121) 겨울 10월에 왕은 부여로 행차하여 太后廟에 제사지내고, 백성으로 곤궁한 자들을 위문하고 물건을 차등있게 내려 주었다.(중략) 11월에 부여로부터 돌아왔다.⁴⁷⁾

건국설화 상의 시조인 주몽왕이 부여로부터 남하하여(B-①) 고구려를 세운 뒤에 부여계 주민들의 이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먼저 주몽의 아들로 계보화되어 있는 유리왕이 남하하였다(B-②). 이 때에 유리왕은 屋智, 句鄒, 都祖 등의 인물과 함께 고구려로 이주하는 등 주몽에 못지 않은 세력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며, 그래서 시조왕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이다. 고구려본기에는 주몽의 아들로써 왕위를 계승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왕의 이주지역 역시 주몽과 동일한 곳으로 되어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유리왕대의 국내위나암 천도 기사를 근거로 국내지역으로 이주한 세력으로 보고자 한다.⁴⁸⁾

부여계 주민들이 고구려로 대거 이주하게 되는 계기는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과 이에 따른 부여국의 몰락이다. 주몽왕이나 유리왕과는 달리 대무신왕은 부여에서 남하한 세력은 아니지만, 많은 부여계 주민의 남하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몽왕이나 유리왕 못지 않은 위상을 갖고 있다. 이후에 나타나는 부여계 주민들의 이주는 대부분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

45)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즉위년조.

46)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16년조.

47)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69년조.

48) 유리왕세력과 國內지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國內 천도 문제와 관련하여 후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후 가장 먼저 고구려로 이주해온 세력은 부여왕의 사촌 동생이다. 그는 가을 7월에 1만여 인을 거느리고 투항해왔다.(B-④) 대무신왕은 그를 왕으로 봉하고 絡씨 성을 주었는데, 무엇보다 掾那部(掾那部)에 안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고구려본기에서 처음으로 掾那部가 등장하는 기사이기도 하다. 사실 주몽왕이나 유리왕이 남하 이후 어떤 나부에 소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구려 왕실을 구성한 세력이 소노부(비류나부) 또는 계루부이기에, 주몽왕과 유리왕은 이 두 部 중 하나에 속하였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絡씨 세력의 예를 통해서 졸본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부여계 세력이 폭넓게 이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나부에 안치했다는 내용은 실제로 대무신왕에 의해 편제되었다기 보다는 絡씨 세력이 연나부 일대로 이주하였던 사실을 대무신왕에 의해 마치安置된 것처럼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1만인이라는 이주민의 규모도 눈길을 끈다. 3세기 掾那部の 주민 수가 3만구의 범위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때, 주민 수로 따지자면 연나부 내에서 1/3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보겠다. 그리고 이후 掾那部[절노부]는 왕비족으로서 소노부와 계루부와 더불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부여계 이주민이 연나부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유의된다. 계루부는 물론 소노부(비류나부)의 경우에도 고고자료에서 확인되듯이 부여계 이주민의 존재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본기 상에서 등장하는 부여계 이주민들이 고구려 초기 국가 구성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 주목되는 세력은 曷思國 세력이다. 부여왕 대소왕이 죽은 이후 그의 아우가 가장 먼저 부여를 떠나 압록곡으로 내려와서 갈사국을 세웠으며(B-③), 갈사왕의 손녀가 대무신왕의 次妃가 되었고 왕자 호동을 낳았다.(B-⑤) 물론 이 기사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갈사

국을 세운 직후에 그의 손녀가 대무신왕의 차비가 되었다고 해도 그 시점은 대무신왕 5년 무렵이며, 그 소생인 호동은 대무신왕 15년에는 열 살이 채 못되는 나이가 된다. 그렇다면 호동 관련 설화에서 보듯이 낙랑왕녀와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설화적 요소가 가미되었지만 부여계 이주세력이 대무신왕대에 고구려의 왕실을 구성하는 일부 세력이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왕자 호동과 갈등 관계에 있는 대무신왕의 元妃에 주목하고자 한다. 元妃의 출신에 대한 기사는 없지만, 대무신왕의 어머니가 비류국 송양왕의 女 松氏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비류나부 출신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무신왕 때 右輔를 지낸 松屋句도 역시 출신부가 기록되지 않았지만,⁴⁹⁾ 성씨가 松氏라는 점에서⁵⁰⁾ 대무신왕의 어머니 松氏와 같은 비류나부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비류나부의 정치적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元妃 역시 비류나부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元妃가 왕자 호동을 참소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⁵¹⁾ 갈사국으로 대표되는 부여계 세력과 비류나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 曷思國王 손녀 소생인 호동은 夫餘系라는 점에서 연나부에 안치된 부여왕종제 집단과 연결된다고 본다면, 비류나부와의 갈등 관계에서 연나부의 존재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리고 曷思國 세력은 태조대왕 16년에 갈사국왕의 손자 都頭가 고구려에 투항함으로써 고구려 내에서 갈사국계 이주민의 세력은 더욱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갈사국 세력이 어느 那部로 편제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49)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4 大武神王 10년조

50) 金賢淑은 松屋句의 姓을 松氏로 보고 있다(1993, 「高句麗 初期 那部の 分化和 貴族의 姓氏」 『慶北史學』16, 10쪽).

51)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15년조.

다음 태조대왕 때에도 왕실 내에 부여계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태조대왕의 母太后이다.⁵²⁾ 계보상으로 따지면 유리왕의 아들 再思의 부인이기 때문에, 대무신왕의 次妃인 갈사국왕 손녀와 더불어 혼인을 통해 고구려 왕실을 구성하는 부여계 세력이다. 이 태조대왕의 모후가 고구려로 이주한 부여계 세력인지 아니면 유리왕의 아들 再思와 혼인을 위해 부여에서 이주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태조왕이 재위 69년에 부여에 행차하여 태후묘에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은(B-⑧) 모태후가 부여 출신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무신왕 次妃인 갈사국왕 손녀 및 부여 출신인 태조대왕 모태후의 존재는 고구려 왕실에서 부여계 세력이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태조대왕이 즉위할 무렵 아버지 再思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⁵³⁾ 태조대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고 재사가 아니라 모태후가 수렴청정하였다는 점도 심상치가 않다. 더욱 유리왕의 아들 再思를 아버지로, 부여 출신을 어머니로 하는 태조왕은 부계와 모계가 모두 부여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태조왕의 즉위가 부여계 이주 세력이 고구려 사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중심적 지위를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유리왕은 비류국 송양왕녀인 松氏와 혼인하였으니, 송씨의 아들인 대무신왕은 비류나부 세력을 母系로 한다. 물론 유

52) 여기의 부여를 졸본부여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丙燾, 1977 《國譯三國史記》 p.243 註 3). 그러나 졸본부여는 백제계 사료에서 등장하는 명칭으로 고구려계 전승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본기에 등장하는 부여를 졸본부여에 대응하기는 곤란하다. 더욱 태조대왕의 69년에 태후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扶餘에 갔을 때, 肅愼의 사신이 방문한 기사로 보건데, 졸본부여로 볼 수 없다. 속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른바 건국설화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동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53)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80년조. “秋七月 遂成獵於倭山 與左右宴於是 貫那于台彌儒·桓那于台菸支留·沸流那皂衣陽神等 陰謂遂成曰 “初 慕本之薨也 太子不肖 羣寮欲立王子再思 再思以老讓子者(하락)”

리왕과 대무신왕을 父子 관계로 기술한 고구려본기 기록에는 의문이 많은데,⁵⁴⁾ 이는 유리왕과 대무신왕을 의제적인 부자관계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⁵⁵⁾ 따라서 유리왕과 대무신왕의 관계 보다는 오히려 대무신왕의 王母가 송양왕녀인 松氏로서 비류나부계라는 점이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대무신왕의 母를 굳이 松氏와 연결시킨 것은 대무신왕과 비류나부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무신왕의 元妃가 비류나부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면, 대무신왕과 元妃의 소생인 모본왕 역시 母系가 비류나부가 된다. 또 대무신왕의 뒤를 이은 동생 민중왕은 대무신왕과 같이 모계가 비류나부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대무신왕-민중왕-모본왕은 비류나부 출신을 모계로 하는 왕으로서, 부여계를 모계로 하는 태조대왕과는 정치세력의 기반이 적어도 모계로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한편 대무신왕에서 태조대왕대까지 왕실 및 那部세력 간의 정치적 관계는 左右輔의 운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좌우보가 사료상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대무신왕대로, 동왕 8년에 乙豆智가 右輔에 임명되고 또 동왕 10년에 乙豆智는 左輔, 松屋句는 右輔에 임명되고 있다.⁵⁶⁾ 우보 송옥구, 좌보 을두지의 출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송옥구는 대무신왕의 母인 松氏와 연결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다음 태조대왕대에 좌우보에 임명된 인물을 보자. 태조대왕 71년에는 沛者 穆度婁가 左輔, 高福章이 右輔가 되어 王弟 遂成과 더불어 ‘參政事’하고 있다.⁵⁷⁾ 사료상으로는 목도루와 고복장의 출신을 알 수 없으나, 이

54) 임기환, 2018b, 앞의 논문, 197쪽.

55) 여호규, 2010, 「高句麗 初期의 王位繼承原理와 古鄒加」, 『동방학지』 150

56)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4 大武神王 8, 10년조

57)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71년조.“冬十月 以沛者穆度婁爲左輔 高福章爲右輔 令與遂成 參政事”

들이 桓那, 貫那, 沸流那 세력의 지지를 받는 遂成[次大王]을 반대하고 태조대왕에 충성하는 인물임을 생각할 때⁵⁸⁾, 환나, 관나, 비류나 출신은 아닐 것이다. 고복장의 경우 성씨를 高씨로 본다면 왕실 계통임은 확실하다⁵⁹⁾. 목도루는 沛者를 역임하는 것으로 보아 那部の 대표자이며, 고복장과는 달리 遂成에 대한 견제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계루부는 아닐 듯하다. 또 왕제 遂成과 결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성과 연결된 환나부, 관나부, 비류나부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면 椽那部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좌우보제의 운영에서 대무신왕대에는 비류나부, 태조왕대에는 연나부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볼 때,⁶⁰⁾ 당시에 왕실이 계루부라는 독자적인 기반이 아니라 비류나부 혹은 연나부를 구성하는 세력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글에서는 卒本시기에 한정하여 부여계 이주세력인 왕실의 세력 기반이 될 수 있는 계루부의 형성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낙 관련 자료가 부족하기에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한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만약 당시에 왕실의 세력기반으로서 계루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계루부가 지리적 공간상으로도 나름 뚜렷한 정치적 중심체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전제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왕실의 세력 거점인 王宮이나 王城, 왕릉의 위치 또는 卒本 都城의 운영에 주목하고자 한다.

58)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18년 7월조 및 90년 10월조.

59) 金賢淑은 고구려본기내에서 왕과 왕의 직계 자손은 항상 이름을 명기 한다는 점에서, 高福章을 직계 왕족이 아닌 계루부 출신의 귀족으로 보았다(1993, 앞의 논문, 29쪽)

60) 필자는 대무신왕, 태조대왕 대에 左右輔에 임명된 인물의 출신을 보면, 계루부 1인 및 비류나부 혹은 연나부 출신 1인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계루부가 비류나부나 연나부와는 연합하는 정치운영 방식으로 좌우보제를 이해한 바 있다(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참조).

주몽왕 4년에 城郭과 宮室을 조영한 기사가 있지만,⁶¹⁾ 이때 곧바로 정치적 중심지로서 도성의 위상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유리왕대의 離宮(別宮) 축조 기사가 유의된다.⁶²⁾ 유리왕 3년에 鶻川, 그리고 涼谷에 동·서 2궁,⁶³⁾ 유리왕 29년에 豆谷에 離宮을 축조하고 있다.⁶⁴⁾ 鶻川은 유리왕의 계비인 禾姬의 근거지라는 점, 豆谷은 후일 유리왕의 장지인 豆谷 東原을 포함한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리왕대 축조된 離宮 자체가 정치적 위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離宮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本宮이 있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궁은 적어도 본궁이 위치한 도성과는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궁이 설치된 곳이 鶻川, 豆谷, 涼谷 등 별도의 지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졸본 도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독자적인谷지명을 갖는 곳에⁶⁵⁾ 離宮이나 별궁을 다수 축조하는 사례는 당시 왕궁이나 도성이 갖는 정치적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유리왕의 離宮과 장지가 위치한 豆谷은 본궁이 있었을 도성에 못지않은 유리왕의 주된 정치적 공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⁶⁶⁾

- 61)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4년조. “秋七月 營作城郭宮室”
- 62) 필자는 전고에서 유리왕대 기사에서 2개 王系에 따른 계통성이 다른 내용이 혼재되었다고 했는데(2018b, 앞의 논문, 201~202쪽), 왕비 송씨 및 후비 기사, 이궁 조영 기사, 부여왕 관계 기사 등은 졸본왕계의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 63)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유리왕 3년조. “作離宮於鶻川 冬十月 王妃松氏薨 王更娶二女以繼室 一曰禾姬 鶻川人之女也 一曰雉姬 漢人之女也 二女爭寵 不相和王於涼谷造東西二宮 各置之”
- 64)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유리왕 29년조. “秋七月 作離宮於豆谷”
- 6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등장하는 谷, 原 등의 지명이 단순히 지리적 환경만을 뜻하지 않고 하나의 정치세력 단위로 파악할 수 있음에서 유추할 수 있다. 임기환, 2004, 앞의 책, 74쪽 참조.
- 66) 유리왕의 경우 豆谷에 이궁을 마련하고, 또 豆谷東原에 장지가 있는 모습은 광개토왕비문에서 추모왕이 흘본서성산에서 건국하고, 흘본 동강에 장지가 있는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豆谷은 다른 이궁과는 달리 국내 지역 계통 자료일

다음 왕릉 장지에 대해 살펴보자.⁶⁷⁾ 주몽왕의 장지는 龍山인데, 광개토왕비에는 忽本 東岡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리왕의 장지는 離宮이 자리하고 있는 豆谷 東原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豆谷은 별도로 東原을 설정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졸본 도성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무신왕의 장지 大獸村原은 후일 국내 도성에 위치한 소수림왕의 장지인 小獸林과 지명에서 연관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大獸村原이 국내지역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졸본 도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간은 아니라고 본다, 대무신왕의 장지는 앞뒤 다른 왕의 장지가 갖는 성격과 연관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다.

민중왕의 경우 장지가 전립지인 閔中原에 위치하고 있기에 일단 도성 공간 범위 밖으로 추정한다. 대체로 왕의 전립지는 국내도성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원도 도성에서 벗어난 별도 지역일 것이다. 모본왕은 시종인 杜魯의 출신지역인 慕本原에 장지를 마련하였다. 모본원의 위치는 알기 어렵지만, 두로를 ‘慕本人’으로 칭한 것으로 보아 국내 지역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졸본 도성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된 장지는 주몽왕이며, 다른 왕의 장지는 졸본 도성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추정된다.

왕릉은 기본적으로 도성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왕릉은 죽은 왕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곳은 일종의 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국내도성에서는 동천왕 이래 왕릉이 도성 경관에서 왕권을 현시하는 주요 요소로 기능하였다고 판단된다.⁶⁸⁾ 이렇게 왕릉이 도성을 구성하며 동시에 왕권을 드러내는 주요한 경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에서 검토하겠다.

67) 이하 장지 관련 서술은 임기환, 2015, 「고구려 국내도성의 형성과 공간구성-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9, 20쪽에서 요약 정리함.

68) 임기환, 2015, 위의 논문.

주몽왕부터 모본왕에 이르기까지 왕릉이 도성에 모여 있지 않고, 도성이 아닌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음은 기본적으로 졸본이 왕권의 세력기반인 도성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졸본 도성이 아닌 곳에 離宮을 다수 축조하거나, 각 왕마다 졸본을 벗어나서 서로 다른 지역에 왕릉을 축조하는 현상은 졸본 도성이 갖는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낸다. 즉 왕실이 도성 공간을 구성하는 독자적인 자기 기반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던 것이다. 당시 왕실의 기반이 계루부가 아니라는 뜻이며, 동시에 아직 那部로서의 계루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이런 사례만으로 당시 왕실이 독자적인 세력 기반 즉 계루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다. 하지만 앞서 2장에서도 고고자료를 통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혼강 유역에서 고구려 초기 고분군의 분포 양상을 보면 소노부와 계루부 2개의 나부의 존립 가능성을 찾기 어려워서 소노부(비류나부)만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부여계 이주민이 중심이 되었을 왕실 세력 기반의 핵심은 졸본 도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궁의 존재나 왕릉의 분산 현상에서 드러나는 졸본 도성의 정치적 취약성은 곧 왕실의 세력 기반인 계루부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한다. 즉 문헌 상에서도 졸본 지역에서 계루부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졸본 지역에서는 아직 계루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왕실은 소노부의 구성 세력으로서 존재한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모습이 『삼국지』 고구려전에 기술된 “本消奴部爲王”의 역사상이고, 바로 필자가 앞서 언급한 졸본계 왕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맺음말

본고는 고구려 초기 왕실 교대 시기 및 졸본에서 국내로의 천도 시기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 주제의 하나로서 초기 도성인 졸본지역에서 소노부(비류나부)와 계루부의 존재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적 검토를 기초로 하고, 고구려 초기 고분군에 대한 고고자료를 활용하여 두 那部の 존재 범위를 추정하였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1장에서는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왕실교대 및 천도 관련 기사를 검토하여 소노부 및 계루부와 졸본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먼저 本과 속이라는 고구려전의 시제 파악을 통해 소노부에서 계루부로의 왕실교대 시기가 『삼국지』 고구려전 자료의 획득 시기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消奴加와 拔奇의 “遷住沸流水” 및 伊夷模의 “更作新國” 기사를 분석하여 消奴加의 정치적 기반이 비류수 즉 지금의 혼강 일대이고, 발기가 거느린 하호 3만여구는 실제성을 갖지 못하고, 이이모의 “更作新國”의 세력기반을 계루부로 추정하였다.

2장에서는 비류수 즉 혼강과 그 지천 유역 일대의 고구려 초기 고분군의 분포와 성격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초로, 부여계 이주민과 연결되는 망강루 고분군 및 재지세력인 상고성자고분군과 하고성자 일대가 가장 이른 시기의 정치적 중심지이며, 그 뒤 고력묘자고분군 일대가 정치적 중심지로 변화하는 양상을 통하여, 두 고분군의 조영 주체가 3세기까지 전 왕족으로 정치기반을 갖고 있는 소노부 세력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혼강 일대에서 소노부 외에 계루부라는 또다른 나부의 존재를 보여주는 고고자료는 없다고 이해하였다.

3장에서는 前稿에서 추론한 졸본계 왕계 및 국내계 왕계 중 졸본계

왕계와 계루부와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고구려본기에 등장하는 계루부를 구성하는 주요세력으로서 부여계 이주민의 존재와 세력 기반을 파악하고, 초기 왕실을 구성하는 세력과 비류나부(소노부)의 정치적 결합 관계를 파악하였다. 특히 졸본지역에서 왕실의 기반으로서 계루부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방법으로서 정치적 구심점으로서 졸본도성의 위상을 검토한 결과 유리왕대 離宮의 존재나 주몽왕에서 모본왕까지의 왕릉의 장지가 졸본 도성에서 벗어나 있는 양상을 통해, 졸본 도성의 정치적 구심력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아직 왕실의 기반인 계루부가 형성되지 않았던 결과로 파악하였다. 즉 졸본계 왕계시기에 고구려 왕실은 소노부(비류나부)를 구성하는 세력의 하나였으며, 이러한 모습이 『삼국지』 고구려전에 기술된 “本消奴部爲王”이란 역사상으로 이해하였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後漢書』

2. 논저

- 강경구, 2004 「고구려 東盟祭 序說」, 『백산학보』68,
- 강현숙, 2000, 「石槨積石塚을 통해 본 高句麗 五部」 『역사문화연구』12)
- 권순홍, 2019, 「고구려 도성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기경량, 2017, 「고구려 초기 왕도 졸본의 위치와 성격」 『인문학연구』 제34호
- 김중은,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집단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중은, 2017, 「압록강 유역 고구려 초기 적석묘의 출현과 분포 양상의 성격」 『역사문화연구』 61집
- 김현숙, 1993, 「高句麗 初期 那部の 分化和 貴族의 姓氏」 『慶北史學』16
- 노태돈, 1999,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の 起源」, 『韓國古代史論叢』5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朴燦奎, 2008, 「비류국 연구」 『초기 고구려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중국사회과학원),
- 여호규, 2005, 「고구려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 여호규, 2010, 「高句麗 初期의 王位繼承原理와 古鄒加」, 『동방학지』 150
- 여호규, 2011,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역사문화연구』39
- 이준성, 2019,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임기환, 2018, 「고구려 전기 都城관련 기사의 재검토」 『역사문화연구』 65
- 임기환, 2018, 「고구려 國內 천도시기 再論」 『사학연구』 132호

고구려 초기 消奴部, 桂婁部の 형성과 卒本

조법중, 2007, 「고구려 초기 도읍과 비류국성 연구」 『白山學報』 77

조영광, 2010, 「고구려 5那部の 성립과정과 영역 검토」 『大邱史學』 98

Abstract

Research on formation of Sonobu(消奴部) and Gyerubu(桂婁部) in the Jolbon(卒本), the early Koguryo Dynasty

Lim Ki Hwan

This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formation and existence of Sonobu(消奴部) and Gyerubu(桂婁部) in the early Jolbon(卒本) capital as a research topic to study the problem of the royal replacement.

Through a review of articles on the royal replacement of Goguryeo in the Koguryo-jun of 『Samguk-gi(三國志)』, it was able to find out the the time point of the royal replacement and the location of Sonobu(消奴部) in Jolbon. It was assumed that Sonobu's political base is in the Hongang River(渾江) region, and the political base of Iimo(伊夷模) in the the Guknae(國內) region is Gyerubu(桂婁部).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archaeological studies on the distribution of the ancient tombs of the early Goguryeo Kingdom along the Hongang River(渾江) region, the Hwanin(桓仁) region proved to be the power base of Sonobu(消奴部).

A combination of Buyeo(夫餘) people who created Mangkangru(望江樓) Ancient Tombs and the indigenous forces who created Sanggosungja(上古城子) Ancient Tombs formed a political center in the lower reaches of the Yukdo(六道河) River and the Hagosungja(下古城子) Fortress Wall. Afterwards, GoryoMoeja(高力墓子) Ancient Tombs region was transformed

into a political center.

I reviewed an article about theBuyeo(夫餘) immigrant People who be the main force that forms Gyerubu(桂婁部) on Koguryo-Bongi(高句麗本紀) of 『Sanguk Sagi(三國史記)』. reviewed an article about the The articles on the royal tombs and the royal palaces in Jolbon(卒本) capital period. As a result Gyerubu(桂婁部) would not have been formed in Jolbon(卒本) Region.

Keywords : Sonobu(消奴部), Gyerubu(桂婁部), Mangkangru(望江樓)
Ancient Tombs, Sanggosungja(上古城子) Ancient Tombs,
GoryoMoeja(高力墓子) Ancient Tombs, Jolbon(卒本)
Region, Koguryo Dynasty